

On Sep 2, 2014, at 1:24 AM,
Wirth, Jason wrote:

MID-SENTENCE is a curious word, because it really cannot stand on its own. It operates in a sentence even though it marks the breaking down of a sentence. It does not mark the middle point of a sentence exactly, but it is rather used with verbs that mark an interruption, a cut that keeps a sentence from being a sentence and hence from completing its transition from word assemblage to meaning. A mid-sentence is not half of a sentence, but rather a sentence interrupted in such a way that it is really not a sentence. One for example “pauses” or “stops” mid-sentence, is “interrupted” mid-sentence, or a novel or poem “ends” mid-sentence, making the meaning of the sentence ambiguous, incomplete, a gesture toward the meaningful that does not settle into the realm of clear meaning. The fact that it nonetheless has the rudiments of a sentence keeps it from being utterly meaningless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it impossible to know what that meaning is. Mid-sentences are like ghosts, there without really being there, speaking without clearly saying anything. In a sense, the mid-sentence still bears the indeterminacy out of which all complete sentences emerge.

2014년 9월 2일 1:24 AM,
제임스 워스 작성:

‘문장 중간’이란 흥미로운 단어인데, 그것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장이 나뉘짐을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문장 안에서 작동한다. 그것은 문장의 중간 지점을 엄밀하게 표시한다기 보다는, 동사와 함께 쓰임으로써 중단을 표시하며, 이는 문장을 문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곧 단어의 조합에서 의미로의 전환이 완성되지 못하게 한다. 문장 중간은 문장의 반이 아니라, 그보다는 진짜 문장이 아닌 형태로 중단된 문장이다. 예를 들어 문장 중간을 “잠시 멈추”거나 “중지한” 것은 “중단된” 문장 중간일 수도 있고, 소설이나 시에서 문장 중간을 “끝내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애매한 미완성으로 만드는 것으로 불명확한 의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의미를 향한 몸짓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장의 파편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문장 중간은 유령과도 같아서, 거기에 있지만 진짜로 있지 않고, 말하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문장 중간은 모든 완결된 문장이 나타날 때의 불확정성을 여전히 담고 있다.